



가정 탐방으로 끈끈한 연대감 이어준 약사공론 최장기 연재물 ‘약사가족’

## 30년의 타임머신 비행... 김상오씨 가족



## “70나이에 현역으로 일하는 보람 가정의 화목과 건강 가꾼 에너지”

30년 전인 1977년 5월 23일자 약사공론 제16면- 당시 고정란이었던 ‘약사가족’에 김상오씨 가족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약사가족’은 1976년 말에 시작하여 약사공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고정란이었다. 직업 현장보다는 주로 회원의 안방과 정원을 찾아 가족의 면면을 소개한 기획물로 졸업 후 소식을 몰라 궁금하던 선후배와 동기들의 근황과 가족관계를 알리는 인기(?) 연재물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김상오씨의 가족은 어찌 되었을까? 30년전 김상오씨는 40세의 나이로 서울 동대문구 분회장 직무대행이었고 상봉동에서 동양약국을 경영

했다. 김승자 여사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고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차남은 유치원생이었다. 장남 한석군은 건축사가 되어 지금 신안그룹의 과장으로 재직중이고 차남 범석군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학원 재학중인데 경영학을 공부중이다. 차남은 미혼이지만 장남은 벌써 두 아들을 두어 할아버지의 ‘사는 맛’을 배가시키고 있다.

“세상에 약사만한 좋은 직업이 없을것 같아요. 지금 나이 70인데 당당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 약사들에게 만날때마다 이 말을 해 줍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쩡그리고 살지 말라고요.”

김상오씨가 정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동이다. 대학 졸업후 바로 약국을 개업, 29년간 상봉동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땅을 마련한게 인연이 되어 11년 전에 이곳으로 왔다. 은퇴하면 살려고 지은 건물인데 건강한 몸을 놀리기 싫어 약국 경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35년간 개근한 헬스 클럽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것 같다는 그는 자신의 약사 생활이 곧 약사공론의 역사와 같다는 점을 대견해 했다. 약사공론은 평생 약국의 반려자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7-80년대는 ‘가격질서’가 약사공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였고 김상오씨의 역경에서도 가격이란 단어가 가장 뇌리에 남아 있다.

그는 동대문구 분회장,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회무통이며, 지금도 약사공론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회무생활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가격질서를 지키는데 몰두했던 젊은 혈기였다. 분회장시절, 표시가 사업을 법의 뒷받침 없이 약사회 자체로 실행할 때 청량리의 모 약국에 100만원의 벌금을 받아낸 기억이 생생하다. 결국 50만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내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당시의 분위기가 그림자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자체 사업이 안돼 84년도에 김명섭회장과 함께 표준소매가 제도를 법제화했던 것이다.

최 장기 고정란 기록인 약사가족에 등장한 인물 중 타계한 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약사공론에 담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맥을 이어가며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을 약사가족 출연자(?)는 약사공론 4000호 발행까지 호흡을 같이 해온 가족 중의 가족이었다.



### 약사공론의 역사와 함께 30년 세월이...

1977년 5월 23일자 약사공론에 실린 ‘약사가족’ 고정란의 김상오씨 가족(왼쪽)과 30년 후인 최근의 가족사진... 초등학교 1학년이던 장남은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www.kpanews.co.kr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CHOSUN  
UNIVERSITY  
1946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김 영 수

수도권동문회장 이 영 민

부산지부동문회장 이 민 재

외 동문일동